

특별기획

군산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전 돌입

군산시가 오는 2018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목표로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시는 2단계 방제사업으로 오는 3월까지 사업비 27억여원을 투입해 예상 감염목 14만9000여본을 제거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보존해야 할 지역의 소나무 29만6000여본은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방제는 모두베기를 원칙으로 수질이 불가능한 지역에 한해 최소한으로 현장에서 훈증처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생활권 주변의 우량수목은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기존의 훈증처리는 수거하여 산림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공원 및 관광지, 시내권 등은 도급으로 방제를 진행하고, 읍·면지역의 재선충병 피해지는 군산·익산·김제산림조합과 소나무재선충병 공동 대항방제 업무협약을 맺어 모두베기 대항방제를 통하여 방제를 추진한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세계유산 및 백제왕도인 익산시는 올해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08억원을 확보해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 도지정문화재 15개소, 전통사찰 3개소 등 총 30개소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의 원형과 훼손된 문화재 보존을 위해 보수정비를 실시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백제왕도 익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익산의 대표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우선 설계용역 발주를 완료했으며 문화재청, 전라북도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에 착공해 재정 조기 집행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익산시의회가 2017년도 새해 첫 의사일정인 제200회 임시회를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개최하였다.

익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각 국·과·사업소별로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각종 현안에 대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소병홍 의장은 개회사에서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실천하며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유년을 해의 화두로 "집사공익, 즉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한다"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의정활동에 있어서 여러 사람과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대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함은 물론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을 기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세관, 이달 31일까지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 수립

군산세관(세관장 이범주)은 설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실명절 수출입통관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 기간동안 군산세관은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하고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수출입업체의 명절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세관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오전 6시부터 8시로 2시간 연장 운영하고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를 통해 환급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일 처리 등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하며,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기, 돛, 명태, 고등어 등 제수용품의 유통단계 불법 용도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지역 김 양식 어민들 숙원사업

김 가공시설 조속히 마련되야

가공시설 없어 전량 타지로 유출되면서 인지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군산지역 김 양식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김 가공시설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어민들이 숙망 태우고 있다.

<본보 1월 10일자 8면>

이에 전북도와 군산시가 부지 확보 및 예산지원에 적극 나서 군산의 대표적 브랜드 상품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3년 군산대 운영 결과를 보면, 전국 시·군·구 가운데 군산해역 물김 생산량은 전국 1위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군산지역의 물김 위관실적은 2015년 103억원(1만1383톤), 2016년 241억원(2만1033톤)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수협 위관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사매매를 포함하면 군산지역에서는 연간 370억원(4만2000톤) 이상의 물김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실정에도 군산시에 김 가공시설이 없다보니 전량 타지로 유출되면서 군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김이 서천, 완도 산 김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군산 김에 대한 인지도(완도 52.4%, 서천11.4%, 군산2.2%)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군산에서 생산되는 김을 군산에서 가공·유통하는 등 군산의 대표적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여 군산 김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어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군산지역 김 생산 어민들은 "군산에서 생산되는 양을 소화할 수 있는 군산만의 김 가공시설이 갖춰진다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어민들의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군산수협은 신시도 일원 산림청 부지(약4950m<sup>2</sup>)에 대한 공유지점사용

허가 등을 통해 김 가공시설의 현대화 사업 추진을 군산시에 건의했으나 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근 서천의 경우 군에서 직접 나서 부지를 확보하고 가공특화단지를 형성하여 브랜드개발과 마케팅을 펼치는 등 군산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서천군은 현재 전국 마른 김 가공·생산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군산수협 관계자는 "신시도의 경우 바다가 인접해 있고 큰 저수지가 있어 김 가공시설에 필수 요소인 해수와 육수를 공급하기가 용이하고, 인근에 물김 원산지가 모여 있어 유통비 절감 효과는 물론 초기 시설비도 절감될 것"이라며 "수협 자체 예산만으로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어 예산(국·도·시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군산 옥산면 '청암산' 힐링 위한 탐방객들 발길 줄이어

군산시 옥산면에 자리한 청암산에 몸과 마음의 힐링을 찾기 위한 탐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물려드는 관광객에게 자연 그대로를 느끼게 하기 위해 생태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시는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군산호수의 겨울 금빛 물결을 만끽할 수 있는 '청암 원양길'을 조성했으며, 오는 3월에는 어린이 숲 체험시설인 꼬마숲 놀이마당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암산과 군산호수의 생태특성을 고려해 이름 지어진 청암 원양길은 군산호수 제방 350m에 안전펜스와 워터를 조성하고, 아울러 역사숲길 곳곳에 사랑의 포토존을 조성했다.

원양길은 연인은 사랑이 이어지고 가족은 사랑이 쌓이고 친구는 사랑으로 배려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시공원의 인위적인 산책길과는 달리 청암 원양길 코스는 경지가 가깝고 오르막도 매우 인만해 자연의 숨소리를 느끼고자 하는 가족, 연인, 단체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원양길과 연계해 역사숲에 조성된 포토존 또한 은빛 역사숲 길을 따라 조성된 공간으로 불거리와 추워의 한 컷을 담을 수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들에 인기코스로 각광 받고 있다. 또한 꼬마숲 놀이마당은 기존의 정형화된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숲에서 나무와 풀, 습지를 대상으로 살아있는 자연학습을 하면서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주요 시설로는 비가림 학습시설, 모래놀이, 언덕오르기, 통나무 건너기 등 자연에서 놀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인근 습지까지 데크를 연결해 아이들이 습지의 생태를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시는 올해 태고의 자연을 품은 군산호수 수변로를 따라 이어진 삼림욕장 편백나무 보식 및 대나무 식생 복원과 생태관광지의 이마지에 걸맞게 산림 및 습지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나무, 돌 등 친환경 자재를 이용하고 편의시설 등을 보강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복지급여 인상

새해부터 각종 복지급여 기준 및 급여액이 인상됨에 따라 복지 체감도와 수급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달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16년 439만원에서 2017년 447만원으로 1.7%가 인상됐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

대됨에 따라 2016년 127만원에서 2017년 134만원으로 수급비용이 5.2% 인상돼 급여액이 7만원 가량 인상된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17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하여 월 119만원(부가가치 160만원 → 190만4000원)으로 상향돼 연금지급액은 4월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군산시는 맞춤형 급여 및 기

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각종 제도를 적극 홍보해 복지 수급율을 향상시키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노후생활 강화 및 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맞춤형 생계급여 대상자 7823세대(1만1259명)에 359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은 매월 평균 3만 3285명에 60억6200만원을 지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해동환경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익산시·시민감사관 합동 감사결과 발표

2012년부터 4년간 남산면 소재(유)해동환경 석산복구지에 약 7만 4천여 톤의 지정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해 익산시는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12월 9일부터 10일간 2명의 시민감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유)해동환경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관리감독 소홀, 침출수로 인한 물고기폐사 민원처리 부적절, 수차레의 기간연장·복구물량 증가 부적절 승인으로 석산복구지의 폐기물매립장화, 지난해 4월 26일 산지복구를 97.6% 복구지에 또다시 25만㎡ 추가승인 등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지정폐기물의 불법 반입으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주민 건강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고 전 역 원이 천문학적인 비용부담을 떠안았을 뿐 아니라 전례 없는 불법매립 사건으로 시의 대외 이미지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으며 "감사원감사 및 수사가 진행중인 바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현을 시장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 된 자질은 책임감과 사명감이다. 자신의 업무는 신념과 소신을 갖고 추진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하림, 닭고기 만두세트 일주일 간 한정판매

(주)하림이 2017년 붉은 닭의 해를 맞아 닭고기 만두를 앞세운 이색 기획전을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

천연육수로 빚어 육즙이 풍부한 닭고기 만두와 대표 보양식 삼계탕 등을 세트로 구성해 일주일 동안 한정 판매한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명절에 '하림의 닭'이라고 불리던 꿩을 이용해 떡만두국을 끓여 먹었다. 요즘 흔히 육수로 사용하는 쇠고기가 농경사회에서는 귀했기 때문에 야생의 꿩을 활용해 음식에 활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꿩은 사냥을 통해 구해야 하는 귀한 식재료라 구하기 못했을 때는 집에서 기르는 닭을 사용했다.

(주)하림은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붉은 닭의 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닭고기 만두국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왕고기와 왕손만두, 비법육수가 포함된 '하림 꿩대신닭 만두 세트'를 한정 판매한다.

하림 닭고기 만두는 100% 국산 닭고기와 콜라겐이 들어있는 닭발과 천연재료들을 4시간 동안 쪄 고아낸 육수를 만두피와 소에 넣어 빚어 육즙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하림 왕고기와 왕손만두는 만두국은 물론, 찜만두, 군만두, 만두전골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며, 세트 구성으로 제공하는 비법육수는 집에서 육수를 따로 우려내는 불편함 없이 전문 만두국 음식점과 같은 깊은 맛을 손쉽게 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하림 '꿩대신닭 만두 삼계탕 세트'는 건강 보양식 컨셉으로, 왕고기와 비법육수를 비롯해 삼계탕으로 구성됐다.

해당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 하림마켓(www.harimarket.com)에서 구매할 수 있다. 냉동제품 특성상 신선한 제품 배송을 위해 23일 신속하게 무료로 배송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해경, 무허가 중국어선 검거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채광철)는 11일 오후 3시에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8km 해상에서 100급 무허가 중국어선(석도선적, 승선원 12명) 1척을 EEZ 어업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5일 중국 석도항을 출발해 11일 한·중 어업협정선 내에서 쌍말이 조업 방식으로 멀리 약 2000kg을 조업하고 해경의 감문이 시작되자 그물을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항할 당시부터 외부 감문에 최창살과 철망을 설치해 해양경찰 감문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검거된 중국어선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최고 3억원의 담보



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어획물과 등선 방해용 최창살 및 철망 등은 모두 압수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당한 공무집행에 방해할 경우 공용화기 사용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한 뒤로 폭력저항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음과 기상악화를 틈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경찰서, 교통안전문자 발송 '호응'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가 기후, 도로 상태 등 상황에 맞는 교통안전문자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경찰이 교통안전문자 발송을 시작한 지난 한 해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318건으로 15년 대비 470건(26.3%)감소했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는 27명으로 8명(22.9%)감소, 교통사고 부상자는 2046명으로 770명(27.4%)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교통안전문자를 받아본 시민들은 "관내 교통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알게 되어 스스로 조심하게 된다"며 "교통안전을 위해 문자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다"면서 교통안전문자에 대해 높은 호응을 보였다.

김동봉 서장은 "통제와 단속 위주의 교통경찰 활동은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 스스로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